



## ● 화상 및 화재 시 대처법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숨을 쉬고 맥박이 뛰 수 있게 하는 처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화상에 대한 간단한 상식과 처치를 알면 도움이 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열상화상, 화학화상, 전기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칭되는 화상은 열상화상을 의미한다. 열상 화상은 다시 화재에 의한 피부손상 혹은 기도 화상(Flame burn 이라 함), 끓는 물에 의한 조직손상 (scalding burn 이라 함) 및 주전자나 온돌방 등과 같은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화상(Contact burn)이 있다.

화상은 환자의 피부손상 이외에도, 기도가 부어서 생기는 기도 폐쇄, 기관지염이나 폐부종, 쇼크, 근육 파괴에 의한 신부전증,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체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세균침입 방지와 체온조절, 수분의 침투와 증발을 방지한다. 따라서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 시엔 감염과 체액 손실, 온도 조절 장애 등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 화재 시 대처법

- 화재가 난 건물에 갇혔을 경우엔 화재가 난 쪽의 문을 닫고 이 불을 이용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외부로 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가 난 건물에서 탈출한 경우엔 아래쪽에 엎드려서 기어 나오는 것이 좋다. 아래쪽은 열이나 연기나 비교적 적은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성물질이 타면서 가스를 방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히 빠져 나온다.
- 옷이나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경우는 물이나 옷, 담요 등을 이용해서 불을 끄거나 바닥을 구르면서 끄도록 한다.



## ● 열화상

화재나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이들에서 많이 발생한다.

### 처치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타고 있거나 그을린 옷은 먼저 제거한 다음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물수건으로 30분 이상 식혀준다. 만약 환자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희미해지면 쇼크로 인해 위험하므로 빨리 119나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 주의점

물집은 세균에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체온손실로 인한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는다.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 화학화상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피부와 접촉할 때 발생한다. 때로는 화학물질의 연기로 호흡기나 눈에 화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륨, 페놀 등 화합물은 매우 조심하여 다루어야 한다.

### 피부와 접촉되었을 때

#### 처치

환자의 손상된 부위를 물로 씻어주며 옷은 제거하고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분 이상 씻어 준다(옷을 벗긴 상태에서 샤워기 등을 이용하여 물로 씻어준다.)



마른 고형 화학물질은 물과 합쳐지면 더욱 심한 조직 손상을 유발하므로 씻기 전에 고형물질을 털어 낸 후 씻어준다.



### 주의점

안전을 위해 장갑을 착용한다.

씻을 때는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때로는 화학물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 눈에 들어갔을 때

#### 처치

눈 손상은 짧은 시간의 노출로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빨리 물로 씻어 준다. 이때 눈꺼풀을 벌려주어 세척이 잘 되도록 하고 다른 눈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의점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한다.

최소한 15분 이상 씻어낸다.

양쪽 눈에 보호대를 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기체를 마셨을 때 (흡입손상)

순식간에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인공 호흡과 산소투여를 해 주어야 한다.

가능한 한 구강대 구강법이 아닌 기구를 이용한 인공호흡법이 좋다.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